

【 해외금융뉴스: 일본 】

손보업계, 신종 플루 대응 방안 발표

- 신종 플루(H1N1, 신종 인플루엔자 A)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감염자들이 속출하자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감염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포함한 신종플루 대처 방안을 발표함.
 - 손해보험사들은 신종 플루 관련 보험금 지급 담보를 질병·의료보험 및 여행변경 비용보험 중 질병사망비용보험금, 질병치료비용보험금, 치료·구제비용 보험금으로 한정함.
 - 여행경비비용보험금의 경우 이미 여행에 나선 피보험자, 동행자 또는 친족이 신종 플루로 인해 사망 혹은 위독해져 정해진 기간에 입원했거나 정부로부터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보험금이 지불됨.
- 손보업계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달리 신종 플루가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나 보험금 지급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태 추이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보험회사들은 현 시점에서는 신종 플루는 조류 인플루엔자(H5N1)와 달리 특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특정전염병위험부담특약에 해당되지 않고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상해특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시 처음에는 귀국 후 72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잠복기간을 고려해 30일까지로 지급 기간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태 추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둠.
 - 또한 신종 플루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멕시코에서 발병 후 7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회복되고 발병 후 15일 이후까지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사망한 사실도 보험금 지불 조건으로 추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일본보험매일신문 5/8)